모성 본능 중심의 산전교육에 의한 산모의 모성 행동과 태도 변화

- Korean Gentle Birth (KGB) Program의 효과 평가 -

김영란¹ · 민유선¹ · 장우식² · 남문희³ · 전채민⁴ · 전진호⁵ · 손혜숙⁵

프라임여성의원¹, 코리아젠틀버스², 가야대학교 간호학과³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⁴,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⁵

= Abstract =

Improvements of Behavior and Attitude of Pregnant Women Trained by A Maternity-oriented Antenatal Education Program: Assessment of Korean Gentle Birth (KGB) Program

Young-Ran Kim¹ · Yu-Sun Min¹ · U-Sik Jang² · Mun-Hee Nam³
Chae-Min Chun⁴ · Jin-Ho Chun⁵ · Hae-Sook Sohn⁵

Kimhea Prime Women Hospital¹, Korea Gentle Birth²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³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Division of Health and Nutrition Survey⁴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Inje University⁵

Objectiv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well-designed, maternity-oriented antenatal education program (Korean Gentle Birth, KGB) that introduced from the Leboyer Birth and modified in Korea.

Methods: Subjects were over 16 weeks primipara pregnant women who visited an obstetric hospital (one of the current six membership health organization of KGB in Korea) in Kimhae city for antenatal care and informed consented to join in this study; the total 182, 89 with KGB (case) and 93 with only general antenatal care without KGB (control). They were collected during four terms of the KGB from August 2010 to March 2011. Value of maternity, cognition to antenatal education, attitudes to labor, interests and cooperations of the spouse, executing mother-infant attachment and the desirable maternal performance after delivery were surveyed with direct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edCalc (ver 11.5, Mariakerke, Belgium). Level of each categories' responses were presented and compared as the score out of 100. The rate and mean compared by chi-square test, t-test, and paired t-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LR) analysis conducted on the over five times use of 'room in one' and the over one year's intention of breast feeding. $p < 0.05$ wa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income, whether planned pregnancy, and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학위논문 수정 발췌함.

교신저자: 손혜숙,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633-165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화번호: 051-890-6993, 팩스번호: 051-896-9373, E-mail: pms@inje.ac.kr

원고접수: 2012년 1월 17일, 원고채택: 2012년 3월 30일

experiences of abortion between the two groups. Instead, attitude of pregnant education was higher in case than control ($p=0.003$) with proportion of above education group, 84.3% and control group 79.4%, respectively. As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almost surveyed item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case than control group ($p<0.05$). And, as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pre- and post- in the case, almost surveyed items significantly improved in post survey ($p<0.001$). As result of the MLR, the OR (95% CI) of the over five times use of 'room in one' and the over one year's intention of breast feeding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KGB group compared to control group; 6.6 (2.8~15.5) and 13.9 (5.4~35.5), respectively.

Conclusion: Maternity identification and desirable maternal behaviors apparently improved with the KGB. This efforts considered that to support strengthening maternity and build-up the sound culture for pregnancy and birth. When performing antenatal car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KGB is highly recommended. Hope to this study actively used to motivate interests and conduct further studies related to the GB concepts and orientations.

Key words: antenatal education, Korean gentle birth program (KGB), maternity, behavior, attitud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출산의 경향은 문화적 영향, 사회적인 변화와 의학기술의 발전 특히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따라 변화된다. 실제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는 임신을 하기 전,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영아기, 아동기, 성숙기를 통한 경험의 축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모자보건대상자 중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 한 가정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건강과수꾼의 역할을 겸하고 있으며, 영유아는 건강하게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는 국력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다(Park & LEE, 2002). 임부는 분만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분만과정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임하도록 준비하여야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임신과 출산은 정상 생리과정의 하나이지만, 이에 반응하는 양상은 개인마다 현저한 차이를 보여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분만, 산욕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감 등을 경

험하기도 한다(Yoo et al, 2008). 따라서 출산에 대한 사전 지식과 준비가 없다면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며, 특히 초임부인 경우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더욱 크게 겪기 때문에(Oh et al, 2002; Lee, 1998; Lemaster, 1977) 출산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전달 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산전 관리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전교육은 임신 및 출산의 정신적, 신체적, 영적 가치를 재정립하며 출산에 따른 고통 뿐 아니라, 임신 및 출산 과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즉 자연스러우며 부드러운 출산 환경 조성과, 진통이 단순한 통증이 아닌 모성 호르몬의 분비를 위한 생리적 모성확립 과정임을 알게 함으로써 모성의 가치를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지지적 환경 조성은 임신 전 과정에서 임부들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하다(Buckley et al, 2009). 그러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산전교육은 긍정적인 모성관 확립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은 물론, 출산 이후의 육아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임신과 동시에 모성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전관리기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지원은 올바른 모성 확립 뿐 아니라, 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Kim et al, 2002; Jung & Han, 1999).

임부는 체계적인 산전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감정이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나가야 하며 최대한 의료인의 개입 없이 출산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산전교육에서는 임부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강조하여야 하며, 교육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강화시켜야 한다(Yoo et al, 2008). 하지만 이러한 산전관리와 체계적인 산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산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산전교육은 감통 분만, 임신 중 피부 및 유방관리, 모유수유, 산전 운동, 태아의 성장과 발육, 임신 중 위험관리, 아기 목욕, 제대소독 등 생리적, 도구적 측면의 부모 역할에 집중하고(Kim & Koh, 2004; Kim, 2005) 있으며, 중요시 되어야 하는 모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나 모아 애착 및 모성 행동 개선 등의 내용은 간과된 채, 의료적 측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1974년 Leboyer Birth (르보이에 분만)은 산모의 고통과 함께 태아를 배려하는 하나의 분만철학(Leboyer, 1974)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르보이에 분만 역시 초기에는 고유의 개념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 분만법으로 왜곡 수용되어 무턱대고 흉내만 내는 분만법으로 인식되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Leboyer 분만철학에 충실하면서 의료적 수단에 의존하는 출산문화로부터 탈피, 철학적 개념과 모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새로운 출산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Gentle Birth의 개념(Pettle, 1978; Buckley et al, 2009; Motha G, 2010)에서 유래되어 한국형으로 보완 정착시킨 Korean Gentle Birth 프로그램(KGB)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을 받은 교육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 초임부를 대상으로 모성 확립과 모성 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향후 출산 문화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보다 나은 산전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용어정의

1) Gentle Birth (GB) 산전교육프로그램

Gentle birth는 가능한 의료적 개입 없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맞이하게 하여 모성 호르몬 분비로 생리적 모성을 극대화시키고,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의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면서 행복감은 최대화시키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이다(Buckley et al, 2009). 인권분만이라고도 불리며 기존의 의료적 접근만이 아닌, 태아의 인권보호까지를 고려하는 개념으로 신생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Leboyer의 분만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르보이에 분만은 진통 후 출산 과정에서 태아 중심의 분만 환경 조절에 중점을 두는 반면, Gentle Birth는 자궁수축 과정에서 산모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호르몬의 연쇄적인 분비 과정 이해를 통한 모성 극대화까지를 포함한다(Leboyer et al, 1974). 이는 현대의 산과적 기술 발전에 의한 각종 인위적 조작을 최소화시킨 분만 환경을 추구하며, 특히 프라이버시 보장과 자율적 환경에서 진통 과정과 분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예로 강한 조명과 어수선한 소음을 차단하여 산모의 정서적인 안정을 적극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Buckley et al, 2009). Gentle Birth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련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주체인 산모의 가치와 믿음을 분만이라는 과정과 통합시키려는 출산의 핵심 철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모든 분만은 산모마다 각기 다른 고유의 경험으로, 정형화된 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며, 수중분만, 그네분만(좌식분만), 가족분만, 르보이에 분만 등 여러 분만법 그 자체 보다는 분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Motha & MacLeod, 2010). 이를 위해서는 산모들의 분만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을 깨뜨려야 하며 분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거칠며 얼굴은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자랑스러운 강렬한 모성 발견의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방법은 의료인 중심이 아닌, 산모가 주체가 되는 출산문화로 다양한 분만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 후 부모로서의 최선을 다했

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자연 분만, 모아애착 증진, 모유 수유, 긍정적인 육아관(育兒觀) 까지도 증대시키는 이 점이 있다(Buckley et al, 2009; Harper, 2005).

2) 한국형 Gentle Birth (Korean Gentle Birth: KGB) 산전교육프로그램

KGB는 원래의 Leboyer 분만철학과 Gentle Birth 개념을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포괄적인 신(新) 출산문화로 확산시키고자 시도한 한국형 Gentle Birth 프로그램(KGB)이다. 일반적인 산전교육이 임신, 분만, 산욕기 등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내용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Gentle Birth 프로그램은 기존의 의료적 접근만이 아닌, 태아의 인권 보호 개념을 강조하고 있고, 본 연구의 KGB는 산모가 주도가 되어 모성을 극대화시키고 분만의 전반을 이해하는 철학적 개념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Gentle Birth 개념(왜 Gentle Birth인가?)

2단계: 태아와 신생아의 이해(태아의 두뇌발달 이해-태중건강과 평생 건강, 명상태교)

3단계: 출산준비 및 실습(태중건강과 평생 건강, 분만 촉진을 위해 알아야 할 동작, 진통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 의료진과의 협조 사항, 분만실에서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 분만 예행연습)

4단계: 모유수유, 신생아 육아 방법 등

KGB 교육은 임신 중 산모의 건강관리 뿐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긍심과 긍정적인 부모관 확립, 출산 후 모유수유와 육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통상 한 코스의 프로그램은 초임부와 배우자가 함께 동참하여 주 2회 화, 금요일, 매회 2시간 씩, 4주간 운영하였고, 첫 1주일은 1단계, 2단계를 교육하였고, 3단계와 4단계를 2, 3, 4주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15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은 연구자와 교육담당간호사 2명이 보조하여 실시하였고, 교육 장소는 본원 세미나실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P병원에서 유인물,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의 교육매체를 가지고 운영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일정 자격을 갖춘 KGB 회원기관 병원으로 김해시에 소재한 일개 산과 전문병원(P병원)에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내원한 임신 16주 이상의 초임부를 연구 대상으로 잡았다. 16주 이상을 선택한 이유는 임신초기에는 유산이 많고, 입덧으로 교육에 집중되지 않으며, 태아가 16주 이후 청각이 발달하기 때문이다(Yoo et al, 2008). 이 중 연구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교육 및 연구 참여와 설문 응답에 동의한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본 병원의 KGB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군, KGB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전교육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조군으로 나누었다.

연구 기간은 2010년 8월 3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총 4기의 교육과 대상 산모의 출산 후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7개월 간이었다. 연구 기간 동안 제1기부터 제4기까지 총 4기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는 제 1기 교육군 16명, 대조군 21명, 제 2기 교육군 30명, 대조군 31명, 제 3기 교육군 20명, 대조군 23명, 제 4기 교육군 23명, 대조군 18명으로 교육군 89명, 대조군 93명 총 182명이 참석하였으나, 2011년 3월말까지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던 환자를 제외한 교육군 70명, 대조군 51명으로 총 121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KGB는 각 기수별로 주 2회 매회 2시간 씩, 4주간 총 15시간으로 이루어지며, 2010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4기가 수행되었다. 조사 도구(설문지)는 기존의 연구와 문헌을 참고(Park, 2010; Sung & Joo, 2007; Sim, 2002; Shin, 1999)로 예방의학 교수 1인 보건학 교수 1인, 간호학 교수 1인, 간호행정

자 중 임상에서 간호교육 담당과장 1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 제작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 모성에 대한 가치관, 산전교육에 대한 태도, 진통 출산에 대한 태도, 배우자의 태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는 Chronbach's alpha 값으로 모성 가치관 문항군 $\alpha=0.775$, 태교와 산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 문항군 $\alpha=0.823$, 진통 출산에 대한 생각 문항군 $\alpha=0.651$, 배우자의 협조와 관심도 문항군 $\alpha=0.871$ 로 신뢰할만하였다. 대상자 전수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1:1 면접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교육군은 교육 시작 전과 교육 후, 출산 후 3회, 대조군은 교육군의 교육 후 조사 시점과 출산 후 2회 조사하였다. 출산 후 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아기의 일반적 및 산과적 특성을 출산 후 1주 이내에 의무기록과 아기의 울음에 대한 내용은 의료진의 관찰을 근거로 완성하였다(Table 2).

3. 자료 분석

MedCalc 프로그램(ver 11.5, MedCalc Software, Mariakerke, Belgium)을 이용하였다. 특성별 빈도

와 백분율(%)을 구하고, 모성에 대한 가치관, 산전교육에 대한 태도, 진통 출산에 대한 태도, 배우자의 태도는 문항 수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점화하여 비교하였다. 교육군과 대조군의 비교에서 범주형 자료는 chi-square test로, 연속형 자료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paired t-test로 교육군의 전후 변화를 비교하였다. 출산 후 조사에서 출산 후 모성행동 및 행동의지는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산모의 일반적 특성(연령, 학력, 소득수준)과 산과력(결혼기간, 계획임신 여부, 자연임신 여부)으로 보정한 대조군 기준의 교육군 비차비(odds ratio)를 산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의 판단기준은 $\alpha=0.05$ 로 하였다.

성 적

1. 대상자 특성

연구 시작 시점에서 교육군과 대조군의 연령,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건강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과 결혼기간, 계획임신 여부, 임신 형태, 자연유산 경험 및 횟수 등의 산과력은 차이가 없었다(Table 3). 출

Table 1. Study Subjects by the Participating Education Term

Education term	Date	Case	Control	Total
Term 1	2010.08.31.~2010.09.30.	16	21	37
Term 2	2010.10.01.~2010.10.30.	30	31	61
Term 3	2010.11.01.~2010.11.30.	20	23	43
Term 4	2010.12.01.~2010.12.30.	23	18	41
Total		89	93	182

Table 2. Study Design : Assessment Time and Items

Category	No. of Item	Case			Control	
		Before education [Before delivery]	After education [Before delivery]	After delivery	Before delivery	After delivery
General characteristics	4	●			●	
Obstetric history	5	●			●	
Attitude before delivery	4	●	●		●	
Attitude at and after delivery	3			●		●
Execution and intention after delivery	2			●		●

산 전 모성 태도에서도 산전교육에 대한 태도가 교육 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p=0.003$) 모성에 대한 가치, 진통 및 출산과 배우자의 태도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의 특성은 거의 동질하였다.

2. 교육군과 대조군의 비교

1) 교육군의 교육 전·후 모성 태도 비교

100점 만점으로 평점화하여 비교한 모성 태도의 평균 평점은 모성 가치에 대한 태도 교육 전 85.4점, 교

육 후 89.0점($p=0.004$), 산전교육에 대한 태도 교육 전 84.3점, 교육 후 89.9점($p<0.001$), 진통 및 출산에 대한 태도 교육 전 71.3점, 교육 후 82.5점($p<0.001$), 배우자의 태도 교육 전 81.5점, 교육 후 87.0점($p<0.001$)으로 모든 태도가 교육 후 유의하게 개선되었다(Table 4).

2) 출산 당시 및 출산 후 태도, 행동 및 행동의지

진통에 대한 태도는 교육군에서 아기 생각에 몰입, 인내가 84.3%로 대조군 56.8%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bstetric History and Maternal Attitude before Delivery of the Subject Pregnant Women

Characteristic	Classification	Group [N (%)]		p*
		Case (N=70)	Control (N=51)	
Age (yrs)	≤ 20	38 (54.3)	27 (52.9)	0.999
	≥ 30	32 (45.7)	24 (47.1)	
Education	$\leq$ High school	18 (25.7)	19 (37.3)	0.231
	$\geq$ College	52 (74.3)	32 (62.8)	
Monthly income (10,000 KRW)	<200	14 (20.0)	13 (25.5)	0.766
	200~400	42 (60.0)	29 (56.9)	
	≥ 400	14 (20.0)	9 (17.7)	
Self rated health	Bad	13 (18.6)	9 (17.7)	0.819
	Common	29 (41.4)	24 (47.1)	
	Good	28 (40.0)	18 (35.3)	
Marriage interval (yrs)	<3	52 (74.3)	45 (88.2)	0.067
	≥ 3	18 (25.7)	6 (11.8)	
Planned pregnancy	Yes	48 (68.6)	33 (64.7)	0.698
	No	22 (31.4)	18 (35.3)	
Pregnancy type	Natural	62 (88.6)	46 (90.2)	0.999
	Artificial [†]	8 (11.4)	5 (9.8)	
Experience of natural abortion	Yes	11 (15.7)	11 (21.6)	0.477
	No	59 (84.3)	40 (78.4)	
Number of natural abortion (n=22)	1 time	8 (72.7)	7 (63.6)	0.999
	2 times	2 (18.2)	3 (27.3)	
	≥ 3 times	1 (9.1)	1 (9.1)	
Attitude before delivery [‡]		Mean $\pm$ S.D.(min.~max.)		p**
For value of maternity	85.4 $\pm$ 8.4 (64~100)	83.0 $\pm$ 10.1 (47~100)		0.159
For prenatal education	84.3 $\pm$ 8.4 (60~98)	79.4 $\pm$ 9.3 (58~95)		0.003
For labor pain and delivery	71.3 $\pm$ 12.1 (38~94)	69.0 $\pm$ 11.0 (50~94)		0.275
For partner's attitude	81.2 $\pm$ 11.6 (58~100)	79.0 $\pm$ 13.7 (25~100)		0.341

Abbreviation: KRW, Korean won

[†]Induction of ovulation, Artificial insemination, test tube included, [‡]Higher score present more positive

*by chi-square test, **by student t-test

반면, 두려움, 회피, 증오는 15.7%로 대조군 43.2%보다 낮았다($p=0.002$). 엄마가 된 느낌도 교육군에서 자랑, 기쁨, 감사가 95.7%로 대조군 80.4%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실감 잘 안남, 육아가 걱정됨은 4.3%로 대조군 19.6%보다 낮았다($p=0.014$). 배우자의 협조 관심도 교육군에서 매우 협조적이 78.6%로 대조군 56.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23$) (Table 5).

모성 행동의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출산 후 행동 및 행동의지를 출산 후 모아동실 이용률과 모유수유 실천 의도로 비교하였다. 5회 이상 모아동실 이용률은 교육군 78.6%로 대조군 35.3%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출산 후 시점에서 1년 이상 모유수유를 고려하는 율도 교육군 87.2%로 대조군 29.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5).

3. 출산 후 모성행동 및 행동 의지(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산과력을 보정한 상태에서 교육군의 모아동실 5회 이상 사용률은 6.6 (2.8~15.5) 배, 1년 이상 모유수유 실천 의지는 13.9 (5.4~35.5) 배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Table 6).

고 찰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추세는 비슷

Table 4. Maternal Attitude before and after Education in the Case (N=70)

Mean±S.D. (min.~max.)

Attitude [†]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p
For value of maternity	85.4±8.4 (64~100)	89.0±8.8 (72~100)	0.004
For prenatal education	84.3±8.4 (60~98)	89.9±6.4 (68~100)	<0.001
For labor pain and delivery	71.3±12.1 (38~94)	82.5±10.1 (63~100)	<0.001
For partner's attitude	81.2±11.6 (58~100)	87.0±10.2 (58~100)	<0.001
p by paired t-test			
[†] Out of 100 score, higher score present more positive			

Table 5. Attitude, Execution and ntention at and after Delivery in Case and Control

N (%)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Case (N=70)	Control (N=51)	p
Attitude for labor pain	Positive [†]	59 (84.3)	29 (56.8)	0.002
	Negative [‡]	11 (15.7)	22 (43.2)	
Feel being a mother	Proud, pleasure, thanks	67 (95.7)	41 (80.4)	0.014
	Lack of real feeling, worry to bearing	3 (4.3)	10 (19.6)	
Partner's interest and cooperation	Poor	1 (1.4)	4 (7.8)	0.023
	Fair	14 (20.0)	18 (35.3)	
	Good	55 (78.6)	29 (56.9)	
Use of mother-baby rooming in one	≥5 times	55 (78.6)	18 (35.3)	<0.001
	≤4 times	15 (21.4)	33 (64.7)	
Considered interval of breast feeding	≥1 year	61 (87.2)	15 (29.4)	<0.001
	<1 year	9 (12.9)	36 (70.6)	

p by chi-square test

[†]Fall in baby, patience, [‡]Fear, evasion, hatred

Table 6. Odds Ratio (95% CI) of the Positive Maternal Execution and Intention after Delivery

Item	OR (95% CI)	p
Use of rooming in one (≥ 5 times)	6.63 (2.84~15.51)	<0.001
Intention to breast feeding (≥ 1 year)	13.87 (5.42~35.47)	<0.001

*Result of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the subject pregnant women's general characteristics (age, education, income), obstetric history (marriage interval, planned pregnancy, natural pregnancy).

Abbreviations: OR, odds ratio of case compared to control;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p, p of OR

하나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노동인구는 부족으로 나타나는 국가재정 부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Statistics Korea, 2011). 그로 인해 소수의 자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육아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보다 행복한 임신과 당당한 출산, 모성확립 및 긍정적 육아에까지 영향을 주는 출산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원래의 Leboyer 분만철학에 충실하면서 의료적 수단에 의존하는 출산문화로부터 탈피한 철학적 개념과 모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새로운 출산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Gentle Birth의 개념(Pettle, 1978; Buckley et al, 2009)에서 유래되어 한국형으로 보완 정착시킨 KGB 교육을 실시를 통하여 향후 출산 문화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산전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 시작점에서의 교육군과 대조군의 특성은 연령, 학력, 소득, 결혼기간, 계획임신 및 자연임신 여부, 자연유산 경험 등에서 차이가 없었고, 출산 전 모성 태도에서도 산전교육에 대한 태도가 교육군에서 대조군보다 높아 교육군에 참석한 집단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보다 높음을 시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성에 대한 가치, 진통 및 출산과 배우자의 태도가 두 군간에 차이가 없어 두 군의 특성이 대체로 동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교육군의 교육 전·후 모성 태도는 모성 가치에 대한 태도($p=0.004$), 산전교육에 대한 태도(<0.001), 진통 및 출산에 대한 태도(<0.001), 배우자의 태도(<0.001) 모두에서 교육 후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KGB 교육이 '선택받은 모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강조한 효과로 여겨지며, 출산준비 교육을 받은 산모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어머니 역할 수행 자신감과 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Oh et al, 2006; Kim et al, 2005; Moon, 2002; Oh et al, 2002; Park & Lee, 2002; Shin,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출산 당시 및 출산 후 태도에서 진통에 대한 태도는 교육군에서 '두려움, 회피, 증오감'보다 '아기몰입, 인내심'이 훨씬 높았으며, 엄마가 된 느낌도 '자랑, 기쁨, 감사'가 '실감 잘 안남, 육아 걱정'보다 높았다. 이는 KGB 교육이 엄마로서 아기의 고통까지도 배려해야 함을 강조하며 진통,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연분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출산에 따르는 두려움을 낮추는 태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도 산전교육을 받은 군의 불안 수준이 받지 않은 군보다 낮았다고 하였으며(Jung, 2003), 라마즈 교육에서 임신 중 영양과 주의 사항, 임부체조, 이완운동, 호흡법, 신생아관리, 모유수유 등을 교육한 산전교육을 받은 교육군과 대조군의 비교에서 교육군이 분만통증에 대한 통증정도가 낮았다는 이은미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진통 및 출산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Park, 2010; Lee et al, 1998).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초산모의 산전교육 프로그램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증진시켜 주므로(Oh, 2002) 진통, 출산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양양(昂揚)시키는 산전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협조 관심도 교육군에서 '매우 협조적'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KGB 교육 중에서도 특히 부부 오리엔테이션과 부부특강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내용 효과로 여겨진다. 이는 산전 배우자 지지교육을 받은 배우자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임신부를 지지하였다는 연구(Kwak et al, 2004; Sung et al, 2004)나, 출산 과정동안 산모에 대한 지지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연구(Jeon & Yoo, 200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배우자의 아로마테라피 제공이 분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고 분만 참여 만족도를 상승시켰다(Lee & Hur, 2011)는 연구와, 가족과 함께 분만이 보다 편안하고 긍정적이라고 한 연구(Jang & Park, 2002) 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산전교육에 보다 적극적인 배우자의 참여 유도, 동기 부여를 통한 배우자의 행동 변화와 실천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보강이 필요하다.

모성 행동의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출산 후 행동 및 행동 의지를 출산 후 모아동실 이용률과 모유수유 실천 의도로 비교 한 결과에서 5회 이상 모아동실 이용률과 출산 후 시점에서 1년 이상 모유수유 고령율이 교육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는 아기의 고통을 배려하고 아기 생각에 몰입하며 진통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과 모자동실과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KGB 교육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산전교육이 모유수유 실천 증진의 간접적인 효과와 모아애착 및 상호작용 증진에 영향을 주며 교육군에서 모유수유 실천율이 높게 나타났다(Jang & Kim, 2010; Jang et al, 2008; Kim et al, 2005; Park, 2005; Oh et a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모유수유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2.1%(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에 불과하므로 모유수유의 모자 건강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의료기관과 정부는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는 이러한 교육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산모의 특성으로 보정한 상태에서 교육군의 모아동실 5회 이상 사용률은

6.6 (2.8~15.5)배, 1년 이상 모유수유 실천 의지는 13.9 (5.4~35.5)배 대조군 보다 유의하게 높아 모자동실 사용군에서 영아에 대한 산모의 태도가 더 긍정적이며 모유수유율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11; Kim et al, 2001; Shin et al, 2002; Kwak et al, 1999)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KGB 교육군이 모자동실 사용의 중요성과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보다 잘 인식하고 있어 모성 가치관이나 산전 태교의 중요성 이해 뿐 만 아니라 출산 후 바람직한 모성행동 지지와 건전한 육아관 확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모유수유 실천 의도와 실제 실천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실천 의도가 높을수록 향후 실천율도 높을 것으로 간주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도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신념이 모유수유의 성공적 실천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였으며(Kim, 1991), 태교 실천도가 높은 군에서 조제수유보다 완전모유수유와 혼합수유를 더 많이 하고(Ma, 2003), 태교 실천에 보다 적극적인 임부가 모아 애착이 더 강하며 모유수유도 적극적이라고 하였다(Shin, 1999; Song et al, 2002). 또한 이들 중 타 지역이나 해외 근무, 월말부부 등을 제외한 112명의 배우자가 출산 과정에 직접 동참하였으며 배우자의 협조가 높은 군에서 모자동실 사용률과 모유수유 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 휴가 제공 등의 노력도 모유수유 증진과 모성지지, 나아가 건전한 육아관 확립을 지지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KGB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6개 회원기관 중 일개병원을 대상으로 한 점과 KGB 교육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제한점으로 들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도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출산 후 평가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되는 실제 모유수유 실천율을 충실히 평가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제한점으로 남는다. 연구자는 가능한 추후 6개월, 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통하여 실제 모유수유 실천율을 추가적

으로 평가 해 볼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입연구 설계를 통하여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직접 조사를 수행하여 교육군과 대조군, 교육군에서의 교육 전후 비교로 KGB 교육이 모성 확립과 바람직한 모성행동 전반에 걸쳐 개선 효과를 지님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산전 관리에서 긍정적인 모성관 확립과 건강한 임신 및 출산 뿐 아니라 건전한 육아까지를 고려하는 KGB 교육의 도입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심층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결 론

현재 KGB 교육이 회원 의료기관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점과, KGB 교육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선행 연구가 없어 충실한 비교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KGB 교육은 모성 확립과 바람직한 모성 행동 전반에 걸쳐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시도는 저출산 시대의 모성확립 강화와 바람직한 출산 문화 정착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전관리에서 KGB 교육의 도입과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다양한 후속 연구와 Gentle Birth 확산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동기부여 자료로 이용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Buckley SJ, Buckley S, Gaskin IM. Gentle Birth, Gentle Mothering: A Doctor's Guide to Natural Childbirth and Gentle Early Parenting Choices. Ten Speed Press, 2009;36(3):264-265
- Census statistics. <http://www.kostat.go.kr> 2011
- Harper B. Gentle birth choices Inner. Traditions / Bear & Co, 2005
- Jang GJ, Kim SH. Effects of breast feeding education and support services on breast feeding rates and infant's growth. J Korean Acad Nurs 2010;40(2):277-286
- Jang GJ, Kim SH, Jeong KS. Effect of postpartum breast feeding support by nurse on the breast feeding prevalence. J Korean Acad Nurs 2008;38(1):172-179
- Jang MJ, Park KS. Effect of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 delivery room on the childbirth of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3):371-379
- Jeon MH, Yoo EK. A study primiparous husband's state anxiety, perceived support and the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4;10(1):51-58
- Jung ES, Han ME. A study on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among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9;5(1):79-88
- Jung MS.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on knowledge, anxiety, labor pain and self-cooperation in primiparae and husbands. J Gyeongbuk Acad Nurs 2003;7(2):99-114
- Kim ES, Park YS. The effect of rooming-in on maternal attitude and self confidence for infant care among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1;7(3):256-270
- Kim GY. The effects of prenatal education for the primiparas on self confidence, satisfaction and mother-child interaction about mother's role play.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administration social welfare, Daejeon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administration, 2005
- Kim HS. Study on the factors of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for the primipara who attempted breast feeding.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1
- Kim KK, Koh HJ. The effects of the prenatal education on unwed mother's knowledge about delivery, postpartum care and anxiety.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es 2004;30(1):13-23
- Kim MY, Kim SH, Lee JH. Types of breast feeding and its predictors of mothers in twenty-four months after bir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1):21-30
- Kim YS, Park JW, Bang KS, Jung SR, Woo HS, Lee HJ, Jang HS.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maternal child health services in public health centers. The Korean Community Nursing 2002;13(2):280-291
-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08
- Kwak IJ, Park KH, Lee MY, Kim MR, Lee HS, Hong YM, Yoon SJ, Park HJ. The effect of one session spouse's support reinforcement prenatal education

- program to participation and support degree of spouse to pregnant women during labor.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4;10(1):42-55
- Kwak YH, Han OS, Kim HS. Korean mothers' attitudes toward rooming-i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ooming and breast feeding.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9;4(2):71-89
- Leboyer F. *Birth without violence*. Toronto, Random House 1974
- Lee EM, Lee HJ, Jin Hee Oh, Soon Ae Kim. The effect of a Lamaze program on labor pain in primiparas.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8;4(1):59-84
- Lee JH. The effect of a child care education for first-time mother on newborn care behavior and confidence in maternal role.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8;4(3):322-331
- Lee MK, Hur MH. Effects of the spouse's aromatherapy massage on labor pain, anxiety and childbirth satisfaction for laboring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3):195-204
- Lemaster EE. Parenthood as crisis. In James ED (Ed.), *Marriage today problems, issues and alternatives*. Sehenkman publish Co. 1977:461-466
- Ma HY. A study on the prenatal education and nursing of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The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03
- Moon SB.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um self-care and newborn car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Health Welfare administration 2002
- Motha G, MacLeod KS. *The Gentle Birth Method: The Month-by-Month Jeyarani Way Programme*.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0
- Oh HE, Shim JS, Kim JS. The effect of prenatal education on primiparas' perception of delivery experience,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3):268-277
- Oh JA, Choi MH, Kim HH. Effects of a breast feeding program for premature infants on maternal stress, knowledge, and breast feeding behavior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2004;7(2):121-132
- Oh JH, Lee HJ, Kim YK, Min J, Park KO. The effect of childbirth education and family participated delivery in a labor-delivery-recovery room on primiparas' anxiety, labor pain and perception of childbirth experience. *Clinical Nursing Research* 2006;12(2):145-156
- Park CH, Lee CU. Effect of antenatal education on pregnant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1):34-54
- Park YL.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breast-feeding education on the knowledge, the adhesiveness and the attitude on breast-feeding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2005
- Pettle A. Gentle birth. *Can Fam Physician* 1978;24:1186-118
- Shin GY, Kim OJ, Park JH, Lee JR. Effect of rooming-in on continuation of breast feeding and maternal identit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3):402-411
- Shin HS, Kim SH, Kwon SH.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ial car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0;6(1):34-45
- Shin YB. The Study on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aekyo by pregnant women. The Graduate School of Gyeo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 Sim JS. The effect of prenatal education before delivery on primiparas' self 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2002
- Song JE, Lee MK, Jang SB. Differences of maternal fetal attachment between the rooming-in and non-rooming in groups of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32(4):529-538
- Sung MH, Joo KS.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father's role performance among husbands of primiparou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7;13(3):291-298
- Sung MH, Joo MS, Ju KS. Effects of a prepared childbirth education on the knowledge and delivery participation levels of the spouses of primipar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4;9(3):213-223
- Yoo EK, Kang NM, Kim MH, Kim SA, Kim SJ et al. *Maternity & Women's Health Care*. Mosby, Hyunmunsu, Seoul, 2008:559-583